

생계형 대출 급증 '부채 폭탄'... 자영업자의 위기

불경기에 매출 줄어 임대료·인건비 감당 못해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영세 탓 ... 연체도 급증

광주 북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이모(57)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가게 매출이 3분의 1로 급감했다. 수입 감소에 임대료와 인건비 등 가게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한 이씨는 함께 하던 종업원들을 내보내고 결국 가게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지난 달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해야 했다.

광산구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던 정모(45)씨는 15년 동안 운영해온 안경점을 접어야 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종업원 수를 줄였지만 나이에 게 없기 때문이다. 또 가게 운영을 위해 은행에서 빌렸던 대출금도 부담으로 다가왔다. 결국 이직을 결심하고 직장을 찾았지만 가게 운영을 위해 빌렸던 대출은 '부채 폭탄'이 되어 가게를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

'중산층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정책 구호와 달리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가 증가하는 등 중산층·자영업자 가계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대출 규모가 중소기업대출을 넘어설 기세고,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면서 가계의 빚 부담이 증가해 자영업자의 몰락까지 우려하는 상황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지난 2010년말 94조원에서 2011년말 104조원, 2012년말 114조원, 지난해말 124조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10월말에는 134조원까지 급증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40조원의 자영업자대출이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에 63조원이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면 모든 종류의 대출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기업대출(29조원), 전세대출(13조원), 신용대출(8조원) 등의 증가폭은 자영업자대출 증가에 훨씬 못 미친다. 자영업자대출

을 제외한 중소기업대출은 오히려 줄었다.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자영업자대출 규모가 중소기업대출을 추월할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권에서는 이처럼 자영업자대출이 급증한다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치킨집처럼 영세하고 풀림이 심한 자영업이 많은 탓이다. 은퇴 후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은 줄고 창

업·유지비용은 급증해 '빚더미'에 오른 자영업자들의 증가하는 현실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자영업체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0만1000여개로, 창업 대비 폐업률(3년 이내 폐업하는 비율)은 99.3%다. 100곳이 창업을 하면 이들 가운데 99곳 이상이 3년 이내에 폐업한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폐업률은 전국 평균인 95.9%보다 3.4%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10월 말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하나은행이 0.44%에서 0.82%로 급격히 높아졌으며, 신한(0.33%→0.5%), 국민(0.44%→0.57%)은행 등도 일제히 상승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대출규모가 최근 급증세를 보인 것"이라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위험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참치 해체 즉석 시연회

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10층 식당가에서 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형 참치(눈다랑어)를 해체하는 '참치 즉석 해체 시연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1000원을 기부하고 참치를 맛볼 수 있는 시식회도 함께 진행됐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기아차, 자매결연 장애인과 가을 나들이

기아자동차 광주2공장 임직원이 지난 8일 자매결연을 맺은 광주시 북구 '즐거운 집' 장애인들과 가을나들이를 다녀왔다.

2공장 임직원 6명은 장애인 3명과 이날 하루 목포 해안도로를 둘러보고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견학했다. 또 국립광주과학관을 방문했다.

김진수 2공장장은 "장애인들이 이날 나들이를 통해 마음속에 깊이 가을 즐거움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냈기 바란다"

며 "기아차 광주 2공장은 지역사회 환원에 더욱 관심을 가져 소외된 이웃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아차 광주 2공장은 성빈여사 명절 선물지급과 남구 사랑의 쉼터·북구 노안회관 점심 쌀 지원 및 급식활동, 지적 장애인 단체 로렌시아 후원 등 지역사회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9월 '한국 사회복지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올겨울 포근 ... 패딩 대신 코트 인기 끌 듯

올겨울에는 날씨가 포근해서 오랜만에 패딩 대신 모직 코트, 알파카 코트, 무스탕 등 다양한 외투가 인기를 끌 전망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2012년 기록적인 한파의 영향으로 혹한을 경험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스타일 대신 보온과 기능을 중시해 패딩점퍼가 겨울 외투 시장을 점령해왔다.

아웃도어 업계의 '헤비 다운점퍼'를 시작으로 '몽클레어', '캐나다 구스' 등 수입 프리미엄 패딩점퍼가 인기를 끌었다.

국내 패션브랜드도 세련된 디자인을 앞세워 워따라 패딩 시장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겨울에 비교적 따뜻한 기능성을 강조한 패딩 판매가 한풀 꺾이는 바람에 신세계백화점의 겨울시즌(11월~2월) 패딩 매출 신장률은 제작년에 28.3%였으나, 지난해 13.6%로 떨어졌다.

올해 겨울도 평년보다 따뜻하고 눈이 조금 오는 '마른 겨울'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기능성 외투보다는 스타일을 강조한 외투가 주목받을 것으로 패션업체들은 분석했다.

/연합뉴스

광주신세계, 생활용품 기획전 '메종 드 신세계' 개최

광주신세계가 오는 11일까지 백화점 1층 이벤트홀과 지하 1층 생활매장에서 최신 리빙 트렌드를 만나볼 수 있는 '메종 드 신세계'를 개최한다. 메종 드 신세계는 세계적인 수준의 생활용품 장인들의 예술적인 감각과 문화적 감성을 담은 연중 최대 규모의 '생활용품 기획전'이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컬러감과 실용성을 겸비한 국내외 생활용품 브랜드를 제안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의 리빙 아이템을 선보인다.

최근 가치와 감성을 중요시하는 소비트렌드 속에서 디자이너의 감성이 깃든 키친웨어, 테이블 웨어, 흡수예, 홈데코 등의 생활용품을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또 키친웨어, 테이블웨어, 흡수예, 흡

데코 등 다양한 장르의 30여 개 미입점 해외 브랜드를 선보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로또복권 (제623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7	13	30	39	41	45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813,702,594			8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69,093,433			35	
3	5개 숫자 일치	1,660,900			1,456	
4	4개 숫자 일치	50,000			73,522	
5	3개 숫자 일치	5,000			1,245,962	

'남성은 흥미와 적성, 여성은 안정이 우선'

광주지역 남성들은 좋은 일자리의 최우선 조건으로 급여보다 '흥미와 적성'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잡사랑방(jobsrb.co.kr)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민 264명을 대상으로 '좋은 일자리'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 남성은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9.3%가 '흥미와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어야 한다'(20.3%), '장래성 및 비전이 좋아야 한다'(17.1%), '아근이 없고 주 5일 근무해야 한다'(12.2%), '연봉이 높아야 한다'(8.9%), '직원 복리후생이 좋아야 한다'(8.9%), '출·퇴근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3.3%) 순으로 나타났다.

좋은 일자리 男 '흥미·적성' 女 '안정'

잡사랑방, 광주시민 설문 ... 희망 연봉 남성이 1.5배 높아

야 한다(8.9%), '출·퇴근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3.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성은 27.0%가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가장 좋은 일자리로 꼽아 남성과는 차이를 보였다. 또 '흥미와 적성에 맞아야 한다'(22.7%), '직원 복리후생이 좋아야 한다'(17.0%), '연봉이 높아야 한다'(9.2%), '아근이 없고 주 5일 근무해야 한다'(9.2%),

순이었다. 남성이 두 번째로 꼽은 '장래성 및 비전이 좋은 일자리'는 7.1%에 머물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희망하는 연봉은 남성이 여성보다 1.5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의 경우 '2200만원 이상~2600만원 미만'이 29.38%로 가장 많았고, '18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이 17.0%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남성은

여성보다 1.5배가량 높은 '3400만원 이상'이 40.7%로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은 '26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20.3%였다.

선호하는 직종으로는 남녀 모두 '경영·사무직'을 꼽아 직종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남성은 전체의 35.8%가 '경영·사무직'을 택했고, 'IT·인터넷·정보통신'(17.9%), '생산·제조'(13.8%), '전문직 등 기타'(13.0%) 순이었다. 여성은 남성보다 조금 높은 39.7%가 '경영·사무직'을 택했으며 '전문직 등 기타'(25.5%), '생산·제조'(9.9%), '영업·고객상담'(7.8%) 순으로 집계됐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부동산 경매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배우면서 투자 가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등 집기 제공
사용료 협의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투자자 모심

- 1억원 이상
- 담보 제공 가능
- 경매에 관심 있는 분!

월산동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35평, 주택
4층-35평, 주택
- 시세 및 감정가 -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보 2억에 월270만원 포함)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전체울수리
- 주인 직매 HP. 010-3605-5000



■ 29평 -12층
주거겸 사무실
양동 하천 방향, 원룸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울수리
시 세-1억원 정도
매매가-7000만원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

오피스텔 매매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77평형-20층
사무실 전용
창가코너, 최상층, 전망좋은
사무실 용도로 전체 울수리
룸 2개 사무실 1개
시 세-3억5000만원
매매가-2억7000만원

문의 HP. 010-3180-8900